



중소기업 지원·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

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



금융위원회



한국거래소
KOREA EXCHANGE



I

코넥스시장의 정체성

'초기기업의 성장사다리'



코넥스시장
도입 전

상장까지는 14년4개월, **창업기업은 스스로 견뎌야...**



코넥스시장
출범(13.7)

창업기업의 '성장-회수·재투자'의 벤처생태계 구축 지원



II

코넥스시장의 성과와 한계

'중소기업
성장발판이 되다'

V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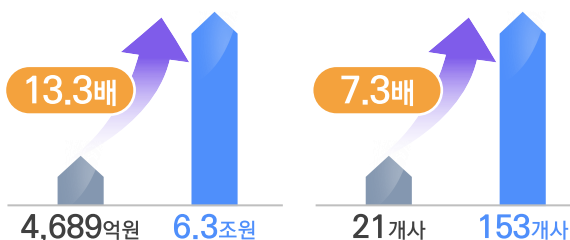
'투자심리 위축,
공공 언 거래시장'



'13년.7월 개장 이래, 중소·벤처기업 성장지원 핵심플랫폼으로 자리매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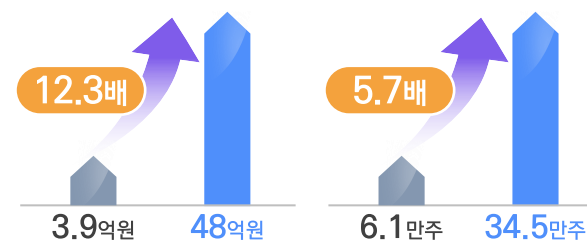
시장규모 확대

시가총액 13.3배 ↑
상장기업수 7.3배 ↑



거래규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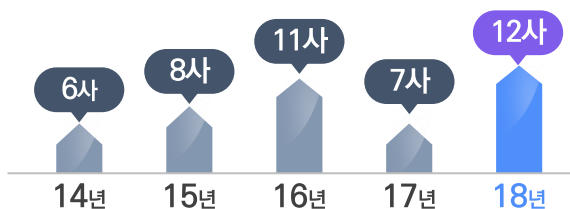
日평균 거래대금 48.0억원 /
거래량 34.5만주



코스닥 이전 상장

상장완료 44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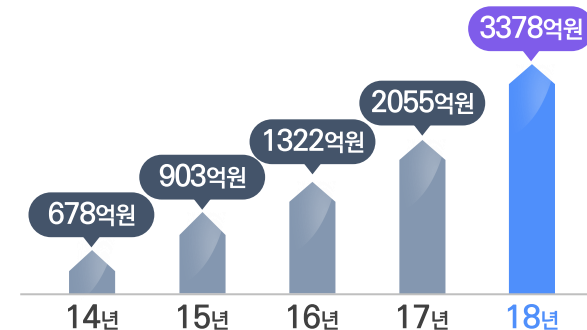
KOSDAQ 평균소요기간
코스닥 상장법인 약 2年



KONEX

자금조달 규모

상장기업 127社 총 8,473억원



시장의 목소리

“기업과 투자자를 코넥스로 끌어들이기 위한 **유인이 충분치 않아...**”

기업

“상장혜택... 기대치엔 미달”

비상장기업보다
어려운 자금조달
코스닥 조기이전 어려워...



투자자

“원활한 회수·재투자 한계”



(VC)

가격신뢰성 문제로
장내매각 어려워...
M&A시 기준가격
활용 어려워...

활발한 참여
어려워...



(개인)

증권사

“지정자문인 인센티브 부족”

지정자문인 역할로
새로운 수익 창출 기대했으나
효용성 낮아 참여 꺼려져...



원인분석

‘거래의 부진’, KONEX 시장(자금조달, 회수시장) 순항에 가장 큰 장애물!

기업

낮은 주가 신뢰성

- ◆ 신주가격 산정 어려움
유가·코스닥과 동일한 가격규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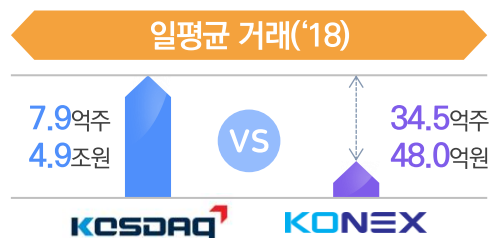
- ◆ 상장유인부족
직상장과 차이없는 이전상장심사절차



투자자

낮은 유동성

- ◆ (VC) 저유동성으로 적시
투자·회수 곤란



- ◆ (개인) 예탁금 1억원이 있어야
투자 가능



증권사

수익모델 창출 어려움

- ◆ 낮은 상장주관 수익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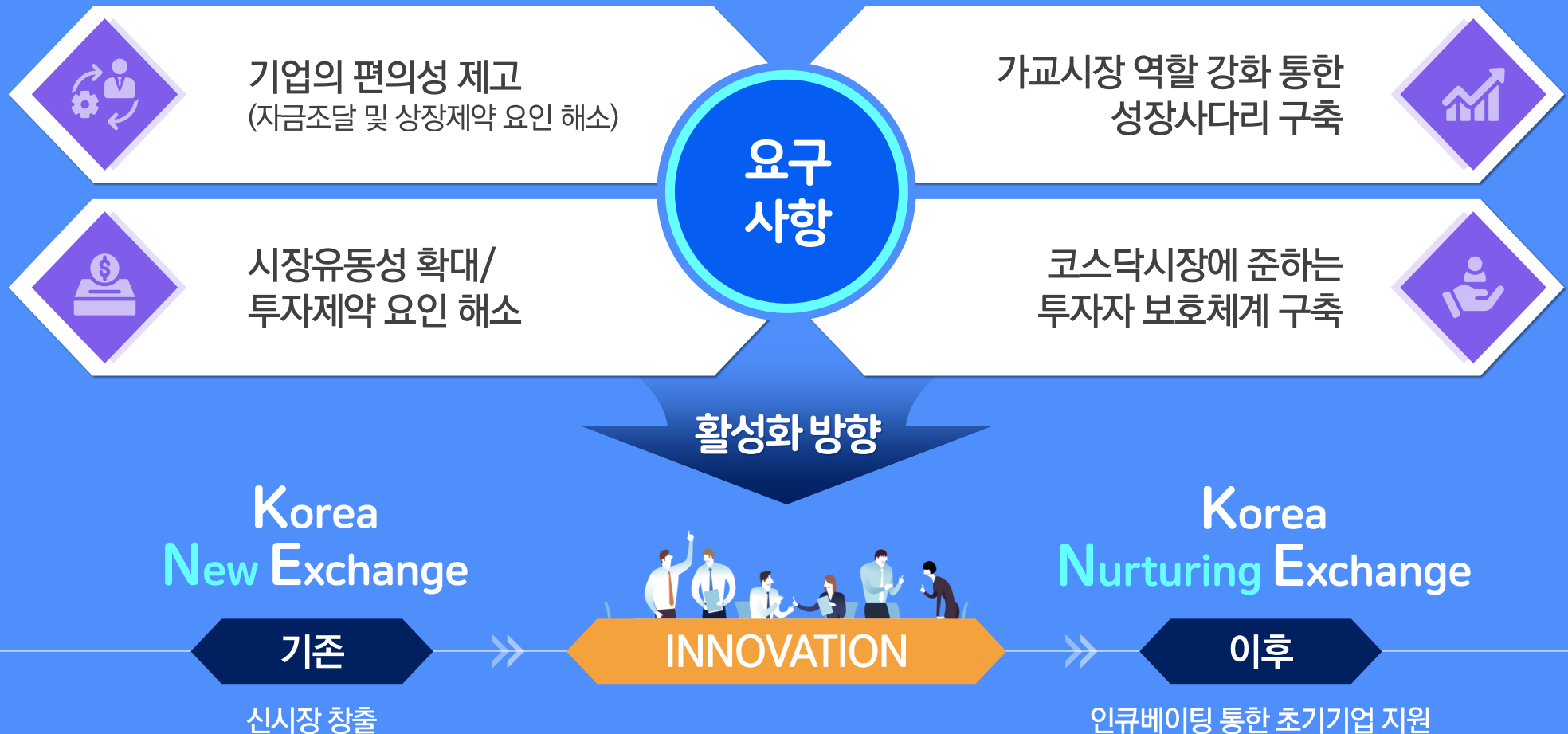


- ◆ 유동성공급 의무로 인한 손실 발생

개장 후 지정자문인 손실규모
1社당 4백만원 ~ 11억원 추정

시사점

코넥스 시장 **문턱 낮추고 효율성 지향**, 개선이 아닌 **혁신의 차원**으로 접근



III

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

**'누구나 상장하고 싶고,
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'**



'양·질의 변화' · '체감할 수 있는 새 희망'이 되게 하겠습니다.

1 (기업에겐) 도약의 시장

- 자금조달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
- 중소기업 특성을 감안한 회계부담 설정
- 신속이전상장 유용성 대폭 확대
- 도약을 위한 컨설팅·교육 내실화

Korea
Nurturing
Exchange

3 (투자자에겐) 신뢰의 시장

- 투자자 정보 제공 확대
- 지정자문인 역할 강화
- 불공정거래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

2 (투자자에겐) 기회의 시장

-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
- 증권사 투자제약요인 해소
- 벤처캐피탈의 대량거래 편의성 제고

코넥스 기업의 **자금조달 규제**를 과감히 **완화**하겠습니다.

AS - IS

1
크라우드 펀딩



크라우드 펀딩
불가능

2
소액공모



10억원

3
신주가격 결정



시장가격 기준
10%~30%할인

TO - BE



크라우드 펀딩
가능(상장 후 3년간)



30억원 ~ **100**억원



객관적절차
자율결정

중소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, 회계 **감독부담**을 낮추겠습니다.

외부감사인 지정

3년 연속 재무상태
'미흡'인 경우에도
적용면제



표준 감사시간

규모가 작은 코넥스 기업의
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
기준 완화



내부회계 관리제도

중소형사 감독기준
별도마련



상장 시 회계특례

상장시점 관계없이
일관되게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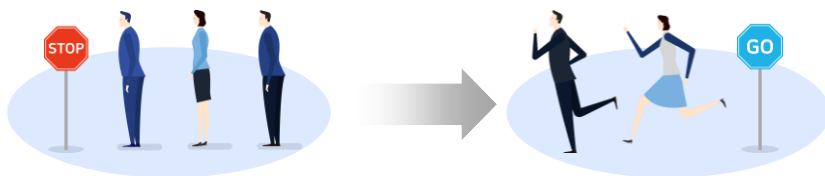


'코스닥 이전상장' 직상장에 비해 쉽게 느껴지도록 **제도와 관행**을 바꾸겠습니다.

기업계속성 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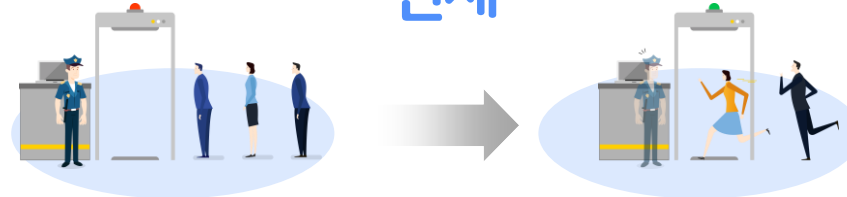
'관행'처럼 실시

'확실'한 면제



경영안정성 심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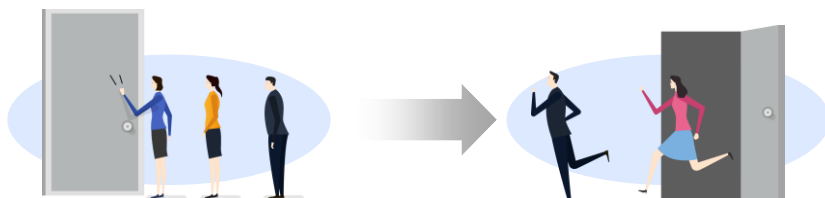
경영·지배구조 안정기업은
면제



이익 미실현 기업

신속이전상장 **불가**

허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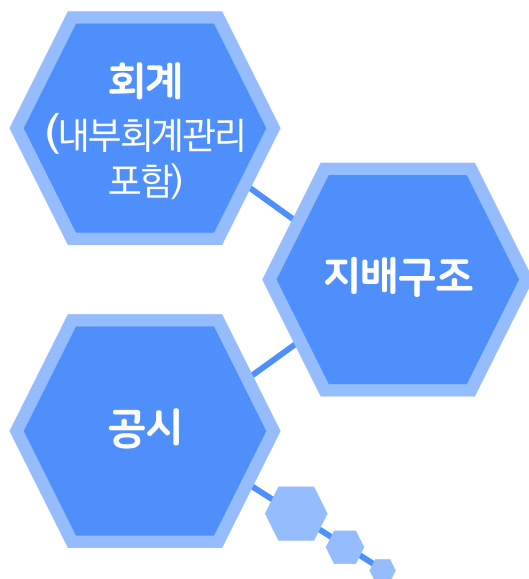
이전상장 시 회계감독

신속이전 상장기업은
완화 적용



코넥스기업의 '코스닥입성', 거래소와 지정자문인이 **든든한 후원자**가 되겠습니다.

이전상장 특화교육 진행



교육프로그램 (안)

이전상장제도 | 이전상장 사례분석 |
기업회계기준(K-IFRS) | 코스닥 공시제도 |
상장법인 지배구조 등



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
이전상장 전담지원반 신설(거래소)



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한
교육·상담 시행
(공인회계사, 변호사, 증권사 등)

컨설팅 분야 (안)

상장 전 상위시장 상장 지원

상장 후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



잘 정비된 '코넥스의 투자자보호 규제', 보다 많은 사람들이 **투자할 수 있게** 하겠습니다.

코스닥시장에 준하는 코넥스시장 투자자보호 체계

KCSDAQ

사업보고서,
분·반기
보고서

정기
공시

KONEX

사업보고서,
기업현황보고서,
의무적IR

52개 항목

수시
공시

29개 항목

외감법 적용
(K-IFRS)

외부
공사

외감법 적용
(K-GAAP)



투자기회 창출 및 시장유동성 확대 가능

개인투자자 예탁금 70% 인하



개인투자자 진입장벽 완화



정보교류차단 규제 완화



지정자문인 진입장벽 해소



'대량매매제도 편의성'을 대폭 개선, 벤처투자의 회수와 재투자를 **적극 지원**하겠습니다.

대량매매제도?

- 5천만원 이상 거래시 거래자간 협상을 통해 같은 가격으로 거래
- 증권거래세·양도소득세 절감



AS - IS

✓ 가격제한 규제 '**엄격**' $\pm 15\%$

✓ 정규시장 거래가 **있는 경우에만** 허용



장점에도 불구하고
'활용도는 미흡'

TO - BE

✓ 가격 제한폭 '**확대**' $\pm 30\%$

✓ 정규시장 거래가 **없어도** 허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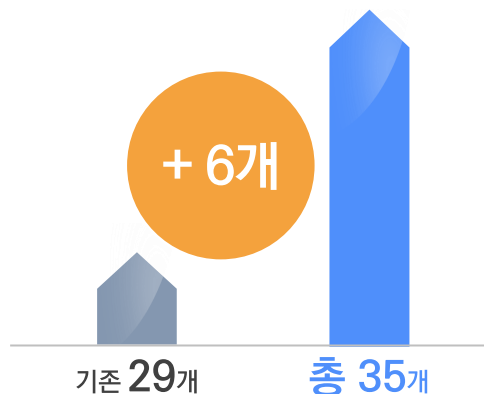


대량 매매제도
'활성화'

개인투자자 진입이 쉬워지는 만큼, **유용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**하겠습니다.

수시 공시항목 확대

- ◆ 손익에 중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



참고 늘어나는 공시항목

시설 등 투자, CB 등 취득·처분
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등



해명공시제도 도입

- ◆ 투자판단에 중요 사항과 관련한
풍문·보도 등에 신속 대응



참고 해명공시 대상

이전상장 관련 계획·결정, 기술평가신청·결과,
중요 임상시험 결과, 테마주 관련,
기업 실적 악화 관련, 대표이사 신상변동,
수시공시사항 범위 외 소송 등



IR 내실화·기업분석보고서 발간 확대

- ◆ IR 방식 다변화·관련 교육 확대
- ◆ 자율공시 인센티브 부여



참고 IR 내실화 프로그램

기업현장 탐방, 증권사 연계,
IR 컨텐츠(업황설명회 등) 확대 등



활짝 열리는 투자의 기회, 투자의 시작에서 관리까지 **투자자 보호**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지정자문인 문지기 역할 강화

◆ 지정자문인 선임 면제기간 단축

크라우드펀딩 기업·기술평가특례 기업

각각 3년·2년간
지정자문인 선임 면제



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
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



◆ 부실IPO 주관 지정자문인에 대한 패널티 강화

자격정지 최대 6개월



자격정지 최대 1년



불공정거래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

시장규모가 작아
불공정거래 발행
위험 및 빈도
낮음



저유동성으로
인한 이상거래
발생, 통정거래
우려 등 상존

- 이상거래 **적출기능** 및 **모니터링 강화**
- 이전상장 예정된 기업 중심으로
이상거래 등 집중적으로 감시



IV

기대효과

'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지속가능'



중소기업 코스닥 상장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.

중소기업

- 코스닥 상장 전 자금조달
- 코스닥 상장을 대비한 교육·연습

증권회사

- 중소기업 IB업무
핵심역량 배양

투자자

- (개인) 안전한 유망 중소기업 투자시장
- (VC) 회수·재투자의 핵심플랫폼

KOSDAQ
코스닥 상장

KONEX



청년의 꿈이 자라나는 시장, **KONEX**

